My Beautiful Folksy Garden

A Home of One's Own

Design / Studio Paradisiartificiali
Stylist / Irene Baratto
Location / via Bernardino Lanino 2, Milan, Italy
Area / 43㎡
Photograph / Isabella Magnani

이국적인 가면 오브제와 수공예 제품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했다.

What is the Concept?

#Comfortable #Primitive #Artistic #Rustic

특별한 오브제를 중심으로 내추럴한 소재와 다채로운 컬러를 조합한 집. 취향이 가득 담긴 갤러리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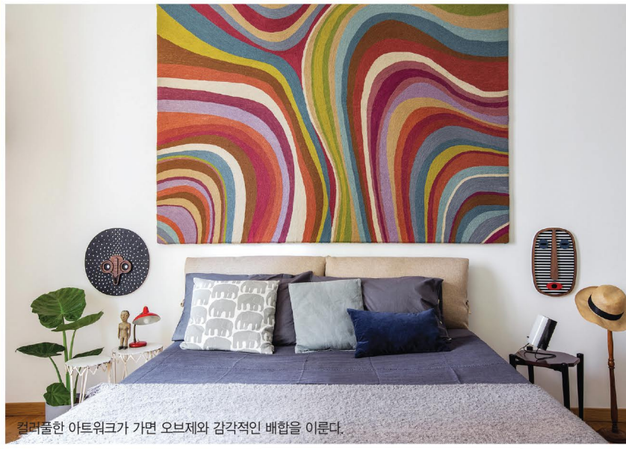
▼ My Best Photo Zone_테마를 살리는 컬러와 소재
거실은 내추럴하면서 토속적인 이 집의 콘셉트를 가장 잘 보여준다. 특히 올리브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한 벽 앞에 목재, 점토 등으로 만든 제품과 손으로 만든 듯한 러프한 장식품을 두어 소박한 멋을 강조했다. 동일한 톤으로 정돈한 커튼과 부드러운 러그가 더해져 더욱 포근한 장면을 연출한다.

때로 작아 보이는 오브제 하나가 공간의 시작점이 된다. 추억이나 경험이 담긴 소중한 물건에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을뿐더러, 바로 그 안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의 모습이 숨어 있다. 이는 범람하는 유행과 스타일의 물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을 확장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A Home of One's Own 프로젝트는 온라인 속 무형의 시스템이 중심이 된 현대에서 잊고 지내던 작은 사물에 집중해 거주자 내면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한 공간이다. 이국적인 가면 오브제와 수공예 감성이 깃든 제품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펼쳐 고풍스러운 밀라노 건물 구조와 편안하고 토속적인 분위기의 조화를 이끌었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지닌 오브제가 어우러지도록 마치 재봉사처럼 공간의 구조와 톤 앤 매너를 세심히 엮어 이상적인 집을 완성했다. 아담한 내부는 공용 공간과 침실로 간결하게 구성되며, 옐로와 그린이 오묘하게 섞인 차분한 컬러를 메인 요소로 활용해 공간에 명확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주방과 거실로 이루어진 공용 공간은 한 벽 전체를 올리브 계열로 마감하고 선반과 커튼에도 색을 확장해 분위기를 잡았다. 특히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토속적인 가면 오브제를 배치해 콘셉트를 분명히 했다. 가구 역시 우드, 라탄 등 내추럴한 소재를 활용했으며 푸른 식물을 장식해 더욱 생기가 넘친다. 복도와 침실은 화이트 톤을 넓게 쓰되 포인트 컬러를 적절히 유지했다. 침실에도 가면 오브제를 두었는데, 이와 감각적인 배합을 이루도록 빛바랜 파란색 침구와 컬러풀한 아트워크를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컬러와 소재의 토속적 오브제가 어우러지도록 편안하고 러스틱한 톤 앤 매너를 의도했다.

가구 역시 우드, 라탄 등 내추럴한 소재를
활용하고 푸른 식물을 장식해 생기 있다.

화이트를 주조로 삼되 포인트 컬러로
콘셉트를 잇는 복도와 침실.



컬러풀한 아트워크가 가면 오브제와 감각적인 배합을 이룬다.

벽 전체를 올리브 계열로 마감하고 선반과
커튼에도 색을 확장해 분위기를 잡았다.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타일을 시공해 분위기를 살린 욕실.